장석준 윤혜정 2인U

EXHIBITION

2011 / 03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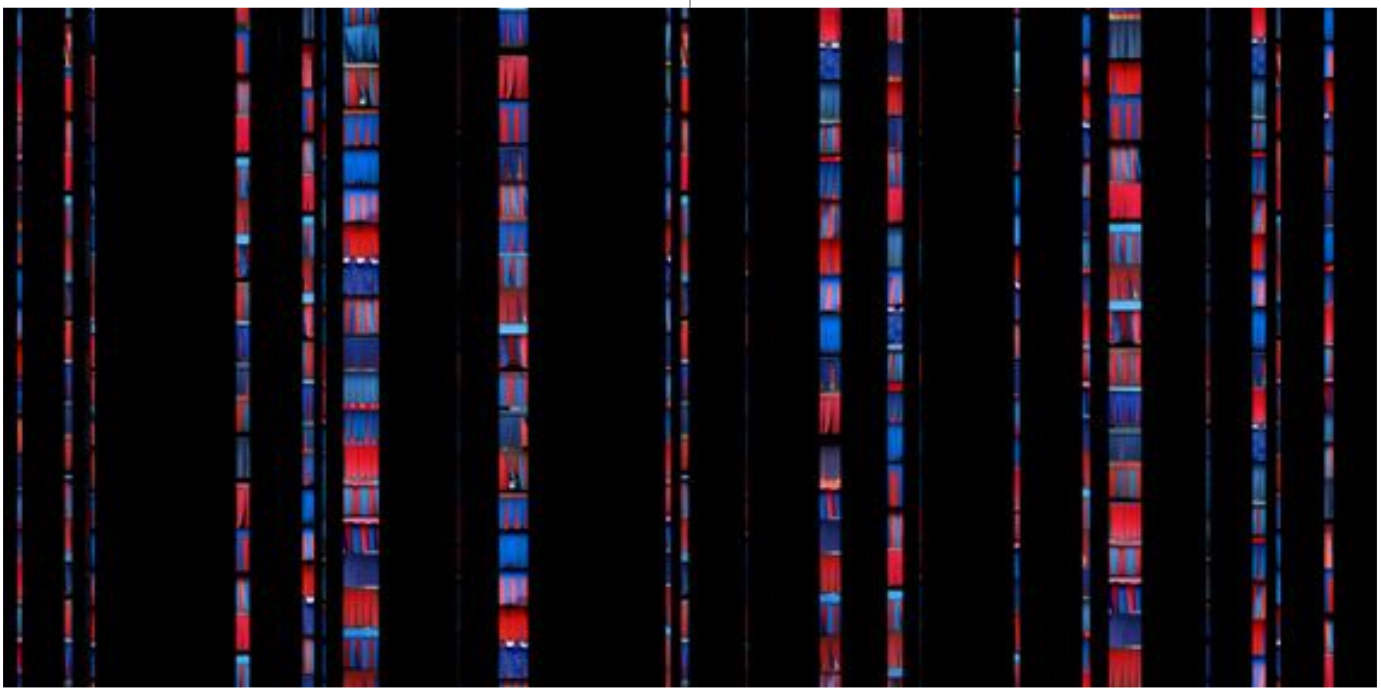
ART IN CULTURE

The city in my mind

3. 4 ~ 4. 16 이언갤러리(http://www.eongallery.kr/)

윤혜정 <CITY-흘러가다 II> 캔버스에 오일 80.3×116.7cm 2011

도시를 공동 주제로 각각 사진과 회화로 작업하는 장석준과 윤혜정의 2인전이 열린다. 장석준은 도시의 거리를 걷다 셔터 벽 문 등의 명명되지 않은 대상들을 사진에 담는다. 익숙한 도시의 기억으로 새로운 잔상들을 그려낸다. 윤혜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빠르게 지나치는 만남과 스치는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빠른 속도감과 새로움의 충격들로 인해 스쳐 지나가는 잔상일 뿐이다. 이러한 '낯선 감정들'은 내면을 자극하여 현실로부터의 일탈을 꿈꾸게 한다.



장석준 <Uni-circus> 디지털 피그먼트 람다 프린트 146×295cm 2009

02)725-6777